복식문화연구
제 9 권 제 3 호 523~531(2001)

朝鮮時代 服飾用語 硏究 I
- 衣服關聯用語를 中心으로 -

김 진 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 Terminologies of the Chosun Period

Jin 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origins of the costume terminologies and to identify the meanings of the names of costumes of the Chosun Period.

Such terms as *dukgai* 得盖, *murot gai* 무롯기 or *murukai* 무루깨, *bal* 볼, *bigya* 비가, *bium* 비음, *samachi* 사마치, *chiene* 처네, *chienui* 薦衣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ignificant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appeared that similar words to *dukgai* were found in the languages such as the language of the arctic regions, Mongolians, English, Sumerian, and Latin.

It is considered that *dukgai* of Chosun was related to L. *toga*.

The word *murot gai* or *murukai* as a kind of head covering had its origins in Korean meaning to cover or to wear.

Also it was found that the word *bal* was derived from L. *palla* meaning a robe, cloak or mantle. Korean *bal* 볼 meant a *dang jugori* 당저고리 or *dang go ui*, a kind of women's formal outer dress.

It was found that word *bium* or *biim*, a garment of Yi Chosun was similar to Ass. *birmu*, a garment. The word, *samachi* of Yi Chosun was derived from the Manchurien word *samachi* meaning a kind of military skirt.

The word, *chiene* 처네 or *chienui* was derived from the Chinese *chien* 帴 that means a skirt, a child's covering, a sheet, and women's underwear.

Key words: dukgai 得盖 an over coat, murukai 무루깨(a kind of head covering), bal(볼), bigya 비가(a kind of vest), bium 비음(a kind of a garment), samachi 사마치(a kind of military skirt), chiene or chienui처네(薦衣, 帴衣).

I. 緖 論

朝鮮時代의 服飾用語 中에는 우리들이 文獻에서 服飾名을 접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떤 服飾用語의 뜻은 바르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므로 인하여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服飾史 연구에서 服飾用語의 연구는 그 중요성 만큼이나 연

이 논문은 2000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구자들을 많이 좌절시키고 연구 의욕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연구분야이기도 하다.

朝鮮時代의 服飾 관련 用語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또는 바르게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복식관련 용어 가운데서 먼저 衣服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衣服用語의 본래 뜻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러한 用語들은 주변 언어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찾아 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朝鮮時代의 服飾 관련 用語 가운데서 몇 개의 衣服 관련 用語로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분명히 알 수 없는 복식 관련 용어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다른 복식 관련 용어의 연구는 후속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복관련용어란 衣服名뿐만 아니라 衣服과 관련된 명칭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복관련 용어는 得盖, 무룻기, 또는 무루쎄, 불, 비갸, 비음, 사마치, 처네 또는 處衣 등이다. 의복관련 용어의 논의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主題別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朝鮮時代라고 하는 말은 李朝鮮 時代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用語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李朝鮮時代의 말을 李朝語라 쓰고자 한다.

Ⅱ. 衣服關聯用語의 考察

1. 得 盖

得盖라는 말은 朝鮮館 譯語의 器用門과 衣服門에 나타나는 말이다. 得盖라는 말은 器用門에 馬靼 得盖라 보이고 衣服門에 袍 得盖라 보인다. 馬靼은 馬被具 卽 馬鞍具이다. 靼은 鞢鞢이다. 鞢은 鞍飾의 의미도 있지만 鞍具 卽 말 안장인 것이다. 得盖라는 말은 덮개의 의미로서 말등을 덮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文璇奎는 得盖란 말을 漢音으로 *tə-kai*로 표음하고 이것을 덥게라고 해석하였다[1]. 그러나 덥게는 덮개로 표기되어야 한다.

本 硏究者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袍의 의미인 得盖이다. 袍를 得盖라고 한 것은 다른 古 문헌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귀한 자료이다. 이런 자료의 발견은 우리나라 古代 服飾用語의 종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복식용어의 전파경로나 또는 어원을 추적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得의 古 漢音은 *tək, tə, te, deei, der* 등이 있다. 盖는 蓋의 俗字로서 古 漢音은 *gay, kai, gee, ko, ho* 등이 있다. 得의 鮮初音은 득이었다. 盖字는 朝鮮館 譯語 天文門에 霧 按盖라고 있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按盖는 안개이다. 訓蒙字會 上 2에 霧 안개 무라고 있다. 盖의 朝鮮時代의 國音은 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得盖의 朝鮮時代의 音은 득개가 된다. 得盖라는 漢字語가 國語의 덮개를 漢音으로 표기한 것인지는 의문이 생긴다. 안개를 按盖로 기록하였음으로 덮는 것이란 의미라면 오히려 개音이 得盖의 盖의 音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國語의 得盖란 말이 있는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인지 또는 더깨, 덕개, 덮개를 漢音으로 音譯하여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音으로 나는 말을 漢音으로 音譯하여 적은 것인지 알 수 없다.

袍를 의미하는 어떤 말이 朝鮮에 流入되었는데 그 말이 우연히 더깨, 덕개, 덮개와 類音이어서 이것들과 混用되고 있던 것을 得盖라고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袍의 의미 得盖와 비교할 수 있는 말들을 주변 언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北極地帶에 beaver의 毛皮나 또는 다른 動物의 毛皮로 만든 over coat에 *toggy* 또는 *tuggy*라는 것이 있다. 몽고어에도 毛外套를 의미하는 *daqu*라는 말이 있다. 위의 北極地帶의 *toggy, tuggy*와 몽고어 *daqu*는 그 音相이 得盖와 類音이고 外套라는 의미도 得盖와 同一하다. 北極地帶의 *toggy, tuggy* 및 *daqu* 는 *tog, toga*와 관련이 있는 말로 추정되고 있다.

영어 *tog*는 *toga*와 관련이 있는 말로 a coat; any outer garment의 뜻으로서 俗語와 口語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Sumer語에 *tug*가 있는데 이 *tug*는 옷을 의미하는 말이다. 得盖는 *tug*와도 그 音相이 유사하다. 또한 得盖는 Eng. *toga*와도 音義 유사하다. L.

1) 文璇奎, 朝鮮館 譯語硏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2), p.291.

*toga*는 a covering, garment, cloak 또는 mantle의 뜻으로서 *toga*는 英語로 gown, coat, cloak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Eng. *toge*도 L. *toga*가 변용된 말로서 a Roman *toga*; a cloak 또는 loose coat의 뜻이다. L. *toga*의 복수는 *togae*이다. L. *toga*는 L. *tegere*, to cover에서 유래된 말이다.

得盖는 *togae*와 흡이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袍의 의미인 朝鮮의 得盖는 L. *toga*의 변종으로서 音義 모두 *toga*에 그 根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北極地帶의 *toggy* 또는 *tuggy*가 L. *toga*에서 연유된 말인 것 같이 몽고어 *daqu*의 근원도 L. *toga*에 있다고 보인다. 李朝語 得盖 또한 L. *toga*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 말들은 모두 L. *toga*의 변종이며 이 말들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적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무루깨, 무롯기

무루깨라는 말이 무엇인지 문헌기록에서 찾아보면 才物譜 女部에 蒙頭衣 婦人出所以蒙蔽頭面者 무루깨라고 있다. 五洲衍文 長箋散稿 衣服裁縫 辨證說에서는 桂 卽 桂衣를 무롯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桂 또는 桂衣는 蒙頭衣가 아니다. 桂에 대하여 釋名, 釋衣服에서 婦人上服曰 衱, 其下垂者, 上廣下狹, 如刀圭也. 라고 설명하였다. 桂衣는 中國婦人들이 漢代로부터 입었던 袍와 같이 긴 겉옷이다.

李圭景이 桂衣를 무롯기라 한 것은 아마도 才物譜의 桂衣에 대한 설명에서 基因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才物譜 女部에서 衱髾를 婦人上服 卽 蒙頭衣之類라 설명하고 桂衣에 대한 설명에서 盖與衱髾一也라고 하였다. 卽 才物譜에서 衱髾와 桂衣를 같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衱髾는 桂衣가 아니고 桂衣의 飾으로 해석하여야 옳다고 생각된다. 髾는 垂髮의 의미도 있지만 桂衣의 裝飾의 一種으로서 逆三角形모양의 뾰족뾰족한 끝을 가진 것들을 층층으로 겹치게 하여 圍裳밑에 돌아가며 걸쳐서 장식한 것이다. 치마 단에서 조금 위로 髾가 보이는 뒤로는 纖이라고 하는 飄帶로 길게 늘어뜨려지게 하였다. 이 髾와 纖의 장식은 魏晉南北朝 時代의 婦人服에 많이 쓰였다. 雜裾垂髾服을 입은 婦人의 모습은 顧愷之의 烈女圖와 洛神圖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雜裾垂髾服을 입은 婦人의 모습은 高句麗 安岳 3號 古墳 벽화의 主人公 貴婦人의 복식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무루깨라는 말의 어원과 의미가 무엇인지 논증하여 보고자 한다. 무롯기와 무루깨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쓰다, 입다라는 의미인 무로 입다, 무루입다, 무루쓰다에서의 무로 또는 무루라는 말의 語尾에 명사를 만드는 接尾語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合成語로서 이 말은 뒤집어 쓰는 물건 또는 뒤집어 쓰는 것, 卽 뒤집어 쓰는 옷이라는 의미이다. 卽 무롯기, 무루깨는 무루 입는 옷이라는 뜻이다. 語尾 개(蓋)라는 말은 語幹뒤에 붙어서 名詞를 만드는 接尾語이다. 接尾語 개는 割子蓋, 子母蓋, 烏子蓋, 南子木蓋 등과 같은 高麗時代의 말에서도 많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朝鮮時代의 말과 現代語에서도 많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語尾 개는 介字로도 나타난다. 무루깨는 무롯기로도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무로는 무루와 同一한 말로서 무로는 무루의 변음이다.

무루입다와 같은 말에 무릅다와 무릅다가 있다. 무릅다와 무릅다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무릅다 ← 무로입다 ← 무루입다 이고
무릅다 ← 무루입다

무루깨 또는 무롯기와 같은 의미로 보이는 말에 무릅깨가 있다. 무릅깨는 이 말 語尾깨字로 보아 무루깨 또는 무롯기 보다 後世의 말로 생각된다. 무릅깨는 무릅다의 무릅에 語尾 개가 붙은 말이라고 보인다. 아니면 무루깨의 변음이거나 무롯기의 변음일 것이다. 무릅다는 무루입다에서 온 말로써 뒤집어 쓰다. 입다의 뜻이다. 이 말은 처네 卽 천의(薦衣)의 뜻이다[2].

천의라는 말은 몇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천의는 朝鮮時代의 宮中撥記에도 나타나는 말이다. 壬午 東宮 嘉禮時의 枕件記에 綿 천의 누비천의 등이 보인다. 이것은 덧 덮는 얇은 작은 이불의 한가지이다. 才物譜 衣部에 보면 寢衣에 대하여 乳子育時所寢者 천의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천의는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포대기를 이른다. 천의의 또다른 뜻은 머리처네라는 것으로서 女子가 나들이 할 때 장

2)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상 (서울 : 三省出版社), 1986. p.1214.

옷같이 머리를 덮어 쓰는 것이다.

무릅깨는 앞에서 이 말의 뜻에서 확인한 바 천의의 뜻 가운데서 여자들이 쓰던 머리처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리처네로서의 천의는 開花期에 사용되었다고 하므로 薦衣의 의미로서의 무릅깨는 李朝鮮時代의 장옷과 쓰개치마 중에서 쓰개치미와 그 형태가 더 가깝다.

따라서, 李朝鮮時代의 무루깨 또는 무롯기는 쓰개치마 類였다고 해석된다.

李圭景이 袿衣를 蒙頭衣 즉 무롯기라고 해석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推定하여 보면 그가 才物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才物譜 女部에 보면 才物譜의 저자는 袿髾를 婦人之上服 卽 蒙頭衣之類라 하였고 袿衣를 盖與袿髾一也.라고 하여 袿衣와 袿髾를 同一한 衣服으로 보았다. 그러나 袿髾는 衣服名이 아니다. 髾는 역삼각형 모양의 긴 여러 가닥을 포개어서 뾰족한 가닥이 겹치게 하여 옷 아랫단 윗쪽을 장식한 하나의 장식이다. 이 장식은 魏晉南北朝 時代에 婦人들에게 流行하였다. 圍裙밑에 장식하여 겉으로 垂髾가 보이게 하였다. 袿髾와 袿衣는 蒙頭衣가 아니므로 袿衣는 무롯기가 아니다. 才物譜의 저자가 袿髾를 蒙頭衣라고 한 것, 袿髾를 袿衣라고 해석한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또한 李圭景이 袿衣를 무롯기라고 해석한 것도 바른 해석이 못된다.

才物譜에서 蒙頭衣 卽 이것으로써 婦人들이 出行할 때 頭面을 덮어가리는 것을 무루깨라고 하였다. 그러나 朝鮮時代의 婦人 外出用 蒙頭衣에는 장옷(長衣, 藏衣)도 있고 面紗와 쓰개치마도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는 무루깨 또는 무롯기라는 말이 위의 蒙頭衣 가운데 어떤 특정한 품목을 지칭한 것인지 또는 蒙頭衣 모두를 총칭하여 무루깨라고 불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3. 볼

볼이라고 하는 말은 順和宮 帖草의 冬至와 상해문안 복식, 여름 복식, 國忌服飾 품목에 보인다.

冬至問安服飾에 슈복즈 볼
상해문안복식에 공단 볼
녀름복식에 직금 볼
국긔복식에 화방듀 볼, 듀 볼 이라고 나타난다.

金用淑은 順和宮 帖草의 볼을 볼이라 해독하고 볼을 옷의 뜻으로 보았다.

본 연구자는 金用淑이 볼 字로 읽은 글자를 볼 字로 해독한다. 金用淑이 볼이라고 해독한 글자는 볼 字가 아니고 볼 字이다.

그 증거로는 順和宮 帖草의 보字, 복字, 봉字, 롤字, 홀字 등의 書體를 주의깊게 살펴 볼 때 金用淑이 볼이라고 해독한 글자는 볼 字가 아니고 볼 字인 것이 명백하여진다.

順花宮 帖草에 보이는 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며 이 말의 유래나 어원 또한 알 수 없다.

볼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는 金用淑이 있을 뿐이다. 金用淑은 볼을 옷이란 뜻으로 본다고 하였다[3]. 그러나 그 녀는 볼에 대하여 그렇게만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볼에 대한 金用淑의 추정은 볼이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또는 그것이 옷의 총칭인지 또는 의복명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順和宮 帖草에 보이는 볼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볼이라고 하는 말은 外國語에서 유래된 말로 보이는데 이 말이 어느 나라 말에 그 연원이 있는지 주변어를 찾아보기로 한다.

漢語 袚은 說文에 蠻夷衣라고 있다. 이 글자는 袾, 襏, 袦, 袦, 袦과 통하는 글자이다.

袚과 襏字는 國音으로는 모두 발이며 볼과 同音이다.

袚은 몇가지 다른 音價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袚字의 音價중에서 볼과 가까운 音價를 찾아보면 廣韻과 集韻에 北末切音撥曷入聲이라 있다. 이때의 袚 漢音은 *bo, po*이다. 袚이 *fwu* 音일 때도 蠻夷服의 뜻이 있다. 襏은 袚과 같은 글자로서 이 두 글자는 音義가 모두 같다. 襏字音은 廣韻, 集韻, 唐韻에 北末切音撥曷入聲이라 있고 *bor, po* 등으로 난다. 襏은 袚과 同字로서의 蠻夷服의 의미 외에도 襏襫의 의미와 三尺衣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通俗文에 三尺衣라 있고 一切經音義 15에도 三尺衣라 있다.

볼은 L. *palla*와도 類音이다. L. *palla*는 robe, man-

3) 金用淑,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亞細亞女性硏究, 第5輯, (1996, 12), 157.

tle의 의미로서 *palla*는 古代 로마 여인들이 착용하였던 表衣였다. 이 옷은 큰 直四角形의 毛織物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또한 볼이란 말은 Eng. *pall*, ME. *pal* 과도 類音이다. Eng. *pall*은 ME. *pal* < OE. *pael* < L. *pallium*, a cover로 변하였다. Eng. *pall*은 그 音相이 L. *palla*와 유사하다. Eng. *pall*은 a rich cloth or coverlet, 또는 a cloak 또는 mantle의 뜻을 가지고 있다[4].

漢語 被, 袚, 襏은 音相으로 볼 때 L. *palla* 보다는 Eng. *pall*, ME. *pal*에 더 가깝다. Eng. *pall*은 pôl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Eng. *pall*의 근원이 *pallium*에 있는 것같이 李朝語 볼의 근원도 L. *palla*에 있다고 생각된다. 볼과 *palla*는 音相도 類音이거니와 로마인의 *palla*는 女人服이고 李朝語 볼도 女人服에 보이기 때문이다.

漢語의 被, 襏은 音相으로 볼 때는 Eng. *pall*, *pal*에 더 가깝다. 그러나 蠻夷衣, 三尺衣라는 意味를 종합하여 볼 때는 L. *palla*와 더 가깝다. 따라서 漢語 被, 襏은 L. *palla*에 대응되는 말로서 이것을 音譯하여 표음하는데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蠻夷衣란 설명은 로마인의 옷이란 의미이고, 三尺衣란 로마 女人의 *palla*가 큰 直四角形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三尺衣라고 설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漢語 被, 襏, 袚 등은 蠻夷服의 이름을 漢語로 音譯한 것이 확실하다. 被, 襏, 袚 등은 英語 *pall*(*pôl*)의 音譯이거나 또는 L. *palla*의 音譯일 것이라 믿어진다.

이와 같이 李朝語 볼은 漢語 被, 襏의 漢音과 類音이고 國音으로는 同音이다. 또한 볼은 L. *palla*, Eng. *pall*, ME. *pal*과도 類音이다.

李朝語 볼이란 말은 音義 모두 L. *palla*와 제일 가깝다. 그 근원이 L. *palla*에 있으며 본래의 의미는 robe, mantle의 의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볼의 본의미는 robe 卽 表衣의 의미이다.

順和宮 帖草에서 보면 볼은 당고의 또는 당져고리를 지칭한 말이다. 李朝時代에 당고의 또는 당져고리는 볼이란 또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도 지칭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볼이란 말의 語源으로서 *palla*의 原義인 cloak 또는 mantle의 의미가 朝鮮에서는 옷 또는 겉옷의 의미로 쓰인 말이 順和宮 帖草에서는 당저고리 또는 당고의를 지칭한 것이다.

4. 비가, 비게

비가와 비게는 比甲의 漢音을 國音으로 표음하여 쓴 것이다.

朴通事 諺解 初刊 上 27에 比甲 비가 오새.

朴通事 諺解 初刊 上 27에서는 比甲을 國音으로 비가라고 표음하였고 같은 책 中 54에서도 比甲을 비가라고 표음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老乞大 諺解 下 46에서는 比甲을 비게라고 표음하였다. 譯語類解 上 44에서는 比甲을 비게옷이라고 번역하였다. 比甲은 元의 昭睿順皇后가 활쏘고 말타기에 편한 옷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比甲은 뒤가 앞보다 길고 袵과 領袖가 없으며 兩擘으로써 매게 되어 있는 길이가 긴 옷이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옷을 따라 입었다고 한다. 이 옷은 明·淸代에 널리 입혀졌다.

5. 비음

비음은 일부 명사 뒤에 쓰이어 명절이나 잔치때에 새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또는 그 옷을 의미하는 말이다.

비음이란 말은 옷 가운데서도 명절이나 잔치때에 해입는 새 옷 즉 보통때 입는 옷보다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몸치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은 지금은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 일부 명사뒤에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명절 비음, 설 비음, 단오 비음, 추석 비음, 돌 비음, 생일 비음, 까치 비음 등의 말을 찾아 볼 수 있다. 비음은 빔이란 준말로도 흔히 쓰이고 있다.

비음이란 말이 쓰인 역사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은 아마도 옷이란 말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있어온 우리나라 말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언제부터인가 비음대신에 옷이나 외복같은 말들이 사용되면서 비음이란 말은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는 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음이란 말이 순수한 우리 독창적인 말이라서 어느 주변어와도 관련이 없는 말인지 또는 어느 주변어의 영향으로 유래된 말로서 고유한 우리 國語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먼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어

4) Webster's New Borld Dictionary, Collegeate Ed. p. 1022.

漢語를 본다면 비음은 漢語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고어, 만주어, 일본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비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動詞에 꾸미다, 단장하다란 뜻을 가진 비오다(← 비ᄋᆞ다 ← 비ᅀᆞ다 ← 비ᅀᆞ다), 비이다(비-이다 ← 빗-이다)라는 말이 있다.

同文類解 上 13에 打扮人 비오ᄂᆞᆫ 사람이라 있고, 朴通事 諺解 上 24에 一箇人 打扮的 한 ᄉᆞᆷ人 비ᄋᆞ기ᄂᆞᆫ이라고 있으며, 譯語類解 上 46에 打扮 비이다. 라고 있다. 빗·옴, 빚·움 등은 빗다의 변종인 빚~의 ㅗ형과 ㅜ형의 명사이다. 비음, 비임은 빚·옴, 빚·움 등의 변음이거나 또는 비오다, 비이다의 명사인 것으로 보인다.

비음, 비임과 아주 유사한 말은 Ass. *birmu*, a kind of clothing이라는 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國語 비음, 비임, 빔 등은 Ass. *birmu*에서 유래된 말로서 *birmu*의 音譯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여온 말일 가능성도 있다.

6. 사마치

사마치라는 말은 甲裙을 지칭한다. 蒙語類解 補編 19에서 甲裙을 李朝語로 사마치, 몽고어로 홀목치라 번역하였다. 漢淸文鑑 上 29에서도 甲裙을 사마치라고 번역하였다. 譯語類解 補 15에서는 甲裙을 갑옷아릿동이라고 번역하였다. 方言類釋 軍器類에 보면 甲身은 갑옷 웃동이라고 번역하였다. 甲身은 上旅라 하고 甲裙은 下旅라고도 한다[5].

사마치라는 말은 滿洲語에서 보이는 점으로 보아서 朝鮮時代의 사마치라는 말은 滿洲語에서 朝鮮으로 流入된 말임이 확실하다. 사마치는 甲裙 卽 갑옷치마의 뜻 외에 男裙 卽 公裳과 襯裙 卽 雨衣를 일컬기도 한다[6].

사마치라는 말은 Gmc. *chamithja*와 아주 유사한 音을 가지고 있다. 英語 *chemise*도 Gmc. *chamithja* → VL. *camisia*, shirt, tunic → O Fr. → M. Eng. *chemise*로 발달하여 온 말로서 이 말은 婦人의 속치마, 또는 shift라는 뜻이다. Fr. *chemise*도 Eng. *chemise*와 같은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cover, covering, wrapper, envelope, tillet, jacket, casing 등의 뜻이 있다.

李朝語 사마치는 滿洲語 사마치에서 유래된 말로서 滿洲語와 音義 모두 同一하다.

7. 처네 薦衣

처네라는 말은 소위 薦衣라는 말의 俗音이다.

처네는 처네 이불, 처네 포대기, 머리 처네 등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몇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처네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네는 얇고 작은 이불의 일종인데 처네는 겹으로 된 것과 얇게 솜을 두어 누빈 것 등이 있다. 이것을 처네 이불이라고도 한다.

처네는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포대기이다. 포대기는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인데 위 양옆에 매는 끈이 달렸다. 이것을 처네 포대기라고 한다.

近來까지도 처네포대기는 겉은 대체로 赤色계통에 녹색계통의 안을 바쳤고 솜을 얇게 두어 누빈 것이 통용되었다.

처네는 전에 여인들이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쓰던 쓰개의 일종으로서 자주색이나 다홍색 겉에 연두색 안을 받치고 솜을 두어 두렁치마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머리처네라고 한다.

才物譜 女에 의거하면 두렁치마는 桶裙이라고 하는 것이다. 桶裙은 통치마를 의미한다.

위의 처네의 뜻에서 본 바와 같이 처네는 처네 이불, 처네 포대기, 머리 처네의 준말이다.

처네 또는 薦衣라고 하는 말의 根源이 어디에 있으며 이 말의 본래의 意味나 또는 語源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만약 한 單語가 처네(薦衣)가 가지고 있는 얇고 작은 이불, 어린 아이의 포대기, 婦人들의 머리에 쓰는 일종의 쓰개 또는 쓰개치마 類 등과 통하는 뜻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薦衣와 同音이거나 類音이면서 同時에 이 말과 같거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낸다면 처네 또는 薦衣의 의미나 語源은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위의 어려운 조건을 갖춘 말을 찾아 보기로 한다. 漢語의 帴字는 音價가 여러 가지가 있고 音

5) 才物譜 兵條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衣服裁縫辨證說.

價에 따라서 뜻이 다른 것도 있고 音價가 달라도 뜻이 같은 것도 있다. 康熙字典을 中心으로 하여 帴字의 漢音과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唐韻 所八切, 集韻 山莫切, 太音紗. *sha*
   廣韻 時干切, 集韻 財干切, 太音殘. *ts'an*
   集韻 私箭切, 音綫. *hsien*
   說文 帛也; 一曰帊也; 一曰婦人脅衣.
2) 廣韻 則前切, 集韻 將先切, 太音箋 *hsien*
   廣韻 小兒繈也.
3) 廣韻 卽淺切, 集韻 子 淺切, 正韻 子踐切. 太音前. *chien*
   集韻 在演切 音踐. *chien*
   (1) 集韻 帊, 帛也.
   (2) 集韻 褓也.
4) 廣韻 思旰切, 集韻 先旰切, 太音散. *san*
   (1) 廣雅 帴, 褯也
   (2) 集韻 帛二幅爲帴.
   (3) 集韻 帴 一曰, 帛也
5) 五音集韻 所戒切, 音晒. *shai*
   被也.
6) 類篇 燮玷切, 纖去聲 *hsien*
   (1) 帛幅也.
   (2) 與韉通

이와 같이 帴字는 많은 音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는 소위 朝鮮의 薦衣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薦衣의 薦字와도 同音인 音을 가지고 있다.

帴字는 韉字와 같은 자이다.

韉字는 본래 薦字만이었는데 俗字로 革字를 더하여 썼다고 한다.

中文大辭典의 韉字條에 鄭珍 說文新附攷 韉所以藉馬鞍. 本止作薦, 俗別加太革.이라 있다. 따라서 薦은 韉이고 韉은 帴이다.

朝鮮의 薦衣의 韉字는 帴과도 通하는 글자로서 薦衣의 薦字는 同音 同義語인 帴字의 다른 표기로서 朝鮮의 薦衣는 漢語 帴衣를 國語로 표기한 말이다.

이와 같이 帴字는 상당히 많은 다른 音價와 뜻을 가지고 있다. 帴字는 國音으로는 전音이고 帛, 帊, 婦人脅衣, 小兒繈, 褓, 襁褓, 鞍韉, 褯, 帛二幅 등의 뜻이 있다. 帴字는 처네 또는 薦衣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卽 아기 포대기, 이불과 머리처네에 해당되는 帊 卽 一幅巾, 二幅帛 또는 帊 등은 처네 또는 薦衣의 뜻과 같다.

소위 쓰개치마, 두렁치마(두렁이)라는 것도 帴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薦衣는 帴衣를 國語로 이것과 同音인 薦衣로 표음하여 썼고 처네는 薦衣의 俗音인 것이 明白하다.

이불천의는 宮中에서도 사용하였던 것을 壬午東宮 嘉禮時 衾枕 件記에서 볼 수 있다. 綿천의, 吾目누비천의, 中누비천의, 細누비천의, 甲누비천의 등이 보인다.

또한 年代不明의 衾枕발기에서도 핫천의, 납작누비천의, 겹천의, 존누비겹천의, 장겹천의 등이 보인다. 金用淑은 이 年代未詳의 발기는 義親王 아니면 哲宗의 無男獨女 永惠翁主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7].

1897년 것으로 英親王의 삼칠일(三七日) 의복발기에는 玉洋木 누비 두렁이와 누비천의가 있고 1898年 英親王의 百日 발기에도 누비천의가 들어 있다.

金用淑은 甲천의를 甲衾이라든가 甲천의라든가는 대개 얇은 천으로 되어 있고 한글 발기에는 홑으로 表記된 것인 즉, 이는 민의 뜻으로 누비지 않은 얇은 것이라고 하였다[8]. 甲천의, 甲衾, 甲裳, 甲봉디 등에서의 甲은 袂의 의미이다. 譯語類解 上 45에 甲袴 겹바디라고 있다. 壬午 四月 八日 발기인 世子嬪 衣襨에서 보면 甲裳과 單裳, 甲봉디와 單봉디가 함께 보인다. 천의를 金用淑은 襨衣라고 썼다[9]. 이 글자는 출처가 어디 있는 글자인지 알 수 없다. 襨字는 襨이나 韉字의 誤記가 아닐까 생각된다. 襨字는 薦의 異體이고 韉字는 帴과 같은 글자이다.

Ⅲ. 結論 및 要約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시대의 의복관련용어 가운데서 得盖, 무릇기, 무루개, 볼, 비가, 비음, 사마치, 처네 또는 薦衣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 용어들의 어

7) 金用淑, "宮中撥記의 硏究", 향토서울, V.18, (1963, 10), 140.
8) 上揭論文, p.126.
9) 上揭論文, p.124.

원과 의미, 주변언어 들과의 관련성, 그 의복 이름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오인되어온 용어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여 도출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袍를 의미하는 得盖라고 하는 말은 國音으로 득개(*duk gai*)였다. 袍의 의미로서의 得盖와 비교할 수 있는 말은 北極地帶의 *toggy* (*tuggy*), overcoat가 있었다. 得盖와 *toggy* (*tuggy*)는 袍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고 이 두 말의 音相도 유사하였다. 몽고어 *daqu*, 毛外套도 得盖와 그 音相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袍라는 의미도 같았다.

영어 *tog*는 a coat, any outer garment의 뜻을 가지고 있는 口語 내지 俗語인데 이 말도 得盖와 音相似이고 의미도 同一하였다. Sumer語 *tug*, garment도 得盖와 音義가 유사하였다.

또한 得盖는 Eng. *toga*, gown, coat, cloak 등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toge*라고도 쓰이는데 *tog*, *toga*, *toge* 모두 L. *toga*에 그 근원이 있었다. L. *toga*는 a covering, garment, cloak 또는 mantle의 뜻인데 L. *tegere*, to cover에서 유래된 말이다. L. *toga*의 복수는 *togae*이다. 이 *togae*는 得盖와 音相이 거의 同一할 뿐만 아니라 의미 또한 同一하였다.

이와 같이 得盖와 音相이 유사하거나 거의 同一하고 의미가 동일한 말은 주변 언어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得盖는 L. *toga*의 변종으로서 音義 모두가 *toga*에 그 근원이 있었다.

무루쌔는 무롯기라고도 쓰였는데 이것은 蒙頭衣란 뜻이다. 무롯기 또는 무루쌔는 무로쓰다, 무루쓰다의 무로 또는 무루와 접미어 기, 개가 합하여 만들어진 合成語로서 뒤집어 쓰는 물건 또는 뒤집어 쓰는 옷이라는 뜻이었다. 이 말은 蒙頭衣에 해당되는 國語였다. 무롯기 또는 무루쌔는 袿衣, 袿髢가 아니었다.

볼은 漢語 被과 Eng. *pall*은 L. *pallium*, a cover에서 유래된 말인데 *pall*은 *palla*와도 類音이다. Eng. *pall*은 L. *pallium*의 뜻인데 a rich cloth or coverlet, a cloak or mantle의 의미였다. 漢語 袶도 *pall*(*pôl*)의 音譯인 것이 확실하다고 해석된다.

볼은 L. *palla*에서 유래되었고 原義는 a robe, cloak 또는 mantle의 의미이다. 따라서 볼은 表衣란 의미로서 順和宮 帖草에 나타나는 볼은 당저고리 또는 당고의를 지칭한 것이었다.

비갸 또는 비게는 比甲의 漢音을 國音으로 표음한 것이었다.

比甲은 본래 中國 元代의 衣名으로서 明·淸代에도 사용되었던 옷인데 소매가 없고, 對襟이며 無領의 옷기장이 긴 옷이었다.

비음의 原義는 꾸미다. 단장하다이며 現今까지도 비음의 의미는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비음 또는 비임은 일부 명사뒤에 쓰이어 명절이나 잔치때에 새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또는 그 옷을 의미하는 말로서 現今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다. 비음은 꾸미다, 단장하다란 뜻을 가진 비오다(← 비ᄋᆞ다 ← 비ᄉᆞ다 ← 비ᄉᆞᄉᆞ다)와 비이다의 명사형이다. 비음 또는 비임과 유사한 말은 Ass. *birmu*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마치라는 말은 Gmc. *chamithja*, Eng. *chemise*와 音義가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사마치는 甲裙의 뜻으로서 音義 모두 만주어로부터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처네라는 말은 國語로 薦衣라고 표기되었던 말의 俗音 내지 변음이다. 薦衣라는 말은 漢語 幾字의 漢音을 國語로 표음한 것 뒤에 衣字를 합하여 만든 合成語로서 中國에 그 연원이 있는 말이었다.

幾字의 冪, 褓, 被, 婦人 裙衣 등의 뜻에서 薦衣의 의미 또한 유래된 것이었다.

參考文獻

康熙字典

高福男(1986). 韓國傳統服飾硏究. 서울 : 一潮閣.

國婚定例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 辭典. 서울 : 民文庫.

金東旭(1979). 韓國服飾史 硏究. 서울 : 亞細亞文化社.

金用淑. "宮中擬記의 硏究", (향토서울 Vol. 18, 1963년 10월), 79-168.

金用淑. "宮中女性 生活硏究", 亞細亞 女性 生活硏究, (Vol. 15, 1965), 39-78.

金用淑. "李朝後期 內人生活 硏究, 亞細亞 女性硏究," (Vol. Ⅲ, 1964), 155-187.

南廣祐(1971). 古語辭典, 서울 : 一潮閣.

老乞大 諺解

同文類解

文璇奎(1972). 朝鮮館 譯語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朴聖實(1992). 朝鮮前期 出土 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朴通事諺解
釋名
수결복식 주장요람.
尙方定例
石宙善(1971). 韓國服飾史. 서울 : 寶晋齋.
順和宮 帖草
歷代 喜禮都監 儀軌
譯語類解
譯語類解 補
劉頌玉(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 服飾. 修學社.
劉昌惇(1987). 李朝語 辭典.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李圭景, 五洲 衍文 長箋散稿
柳喜卿(1975).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張三植 編(1964). 大漢韓辭典, 서울 : 博文出版社.
才物譜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靑圖書 有限公司.
中文大辭典 編纂委員會. 中文 大辭典. 台北 : 中國文化研究所, 中華民國 51年
崔玉子. "李朝 宮中 佩物件記에 대한 考察," 服飾, (3호, 1979), 1~28.
度支定例
漢淸文鑑
訓蒙字會
Guralnik, David. B., Editor in Chief.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1970). Second College World, N. J. Englewood Chiffs: Prentice-Hall Inc.,